

방법론적 다양성을 통한 미적 일관성

로랑 헤기(프랑스 생테티엔느 미술관 관장)

2016

회화적 실재(painterly reality)의 극히 감각적이며 유기적이고 실제적 풍요로움이 모든 함축적인 상상력은-숨겨졌지만-감성적이고 무언가를 환기시키는 듯한 서사들과 함께 쾌활하고 섬세한 붓질, 미묘하고 우아하며 환원되어 거의 단색화에 가깝고 작가 특유의 약간은 우울한 유채색의 성질과 균형 잡혀 있으며 지적으로 통제된 차분함은 신중하게 구조적인 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속적인 자기성찰 그리고 회화의 자기결정과 자기 조직화의 분석적 관찰은 이강소의 회화를 이해하는 틀(frame)을 구성한다.

칠해진 표면의 물질적인 외형(material appearance)의 감각적인 강렬함, 구성에 있어 낯설고 자극적이며 불가사의한 유동성(fluidity), 그리고 다른 회화적 요소들의 의식적으로는 정의되지 않으면서 양면적으로 의미론적인 상태(semantic status)는 다른 가능한 서사들에 있어 근본적으로 제약에서 벗어난 커다란 자유로운 상상의 장을 열고, 이는 회화 과정의 거의 유희적인 분위기(hedonistic atmosphere)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회화적 실재의 감각적 구체성의 느낌은 인식의 다른 형태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모든 가능한 은유적 환기들과 함께 서사적 분위기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강소의 모든 작품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눈길을 끄는 아름다움, 구조의 격렬한 강렬함, 재료가 주는 감각의 풍부함을 제공하고 동시에 현대회화의 기본기능과 능력에 대해 지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그의 회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현실과 정신적인 경향을 구현하는 시간-공간-운동의 구성을 통해 생생하고 효과적이며 암시적인 시각적 은유를 제시하는 능력에 관한 미적 속고(aesthetic considerations)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강소의 모든 회화작품들을 통해 예술적으로 정교한 시각적-조형적 실재를 즐길 수 있고, 그 작품들에서 나오는 감각적 희열(sensual euphoria)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그의 그림이 어떠한 환영(any illusion)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회화의 실재가 외부세계의 어떠한 요소도 모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은유적인 서사를 상기시키며 우주에서 인간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의문을 구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강소는 "진실과 환영이 태동하는 회화의 근원에 접근하고 있다. 그의 회화작품들은 풍경화의 진부함을 전복시킬 뿐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하며 신선하다. 새로운 신작 시리즈에서 이강소는 인식이나 의식, 상상이나 물질에 관한 사유로써 회화의 조건을 이끌어낸다."라고 김애령은 말한다. 이는 사실상 미묘한 회화적 현상의 즉각적이며 쾌활하고, 비맥락적이며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인식이 바로 작가의 의도였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하며 신선한 회화작품들"은 실로 탁월하며 암시적이고 인상적인 회화적 감각을 제공한다. 문제는 수용자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러한 신선한 감각을

내면화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맥락 속에서 그들이 이 극히 호소력 있는 감각적 경험을 구체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동시에 “소재(motives)”에서 구성적이며 구조적인 숙고에 이르기까지, 재현적, 모방적, 암시적, 혹은 상징적 능력에서 연상적, 신비적 상상에 이르기까지, 내재적, 제도적, 분석적 경향에서 공감적, 확장적, 함축적, 즉흥적, 그리고 유사 직감적 경험(quasi immediate emotional experience)에 이르기까지, 수용자들은 모든 회화적 요소들과 방법들의 엄격하고 결과적이며 반복적인 체계화의 한 특정한 종류를 발견한다. 이강소의 작품에서 형태의 근본적인 단순성은 문학적인 의미와 연관의 저하나 제약의 원인이 되거나 다양한 서사적 맥락이나 은유적 발언과의 가능한 연결성들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 이러한 복잡성(complexity) – 이를 “평행 전략(parallel strategy)”이라 부르자 –은 이강소의 미적 관점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인 듯 보인다. 즉, 그는 뛰어난 시각적-조형적 현상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회화적 실재에 결정적인 권력을 부여하나 이러한 회화적 실재는 이해할 수 있는 고려사항들의 구체화로 존재하며 은유적인 관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명백하게 자기참조적이거나 중복적인 시각적 체계가 아니라 생생하며 감각적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호소력이 있으며 연상적인 회화적 실재로 중요성의 은유적 수준에서 가능성이 있는 참조들을 시적으로 상기시킨다. 회화적 표면의 근본적인 구체성은 우리의 상상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관련 맥락이나 다양한 현실인식체계와 관계를 이어준다.

수용자는 또한 이강소가 다루는 소재(motives)의 다양한 의미론적 구체화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 방식의 다양성은 그의 전망의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가지 방법의 우세나 예술적 구조의 단일한 독해를 상대화한다. 필립 다장(Philippe Dagen)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한다. “예상치 못하게 하나의 회화작품에 개성적인 방법들을 병치시키고 다양한 양식들을 독특하게 해석하면서, 이강소는 이러한 회화방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를 향유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가라 할 수 있다. 이강소와 같은 화가들은 회화적 창조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 과정을 자신들의 진정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이들은 후기개념주의적 화가들(post-conceptualist painters)이다.”

이강소의 그림들, 특히 그의 회화 연작들은 편협하고 폐쇄적이며 획일적인 방법의 체계나 가치가 신뢰를 상실한 시대, 예술가나 사상가가 “다양한 책임(multiplicity of responsibility)” 의식을 느끼는 시대에 그의 작업이 갖는 해박하며 encyclopedic 분석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이에 관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편적인 사상의 쇠퇴, 혹은 파멸은 전체주의적인 강박상태로부터 우리의 사유나 삶을 자유롭게 한다. 다양한 책임 그리고 그들의 독립(그들의 상반성)은 크건 작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유연하고 관대한 태도를 갖도록 한다”³⁾ 이러한 언급은 언뜻 들으면 이강소의 회화 방식과 거리가 먼 듯하나 전통적 주제들이나 사상들의 다른 참조들을 재소개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회화적 실재를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배타적이고 유의미한 언어체계와 타당성 있는 해석의 해체이론을 매우 의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이강소의 미적, 윤리적 바탕을 드러낸다.

“다양한 책임”은 어떠한 보편적이며, 두드러진, 배타적으로 유효한 가치체계의 실재 위기나 이러한 가치체계 재현의 위기를 지칭한다. 또 그것은 다른 시각적-조형적 재현의 다양한 해석과 평행론(the parallelism)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가치체계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특정한 정신적 문화적 구성의 구체화, 상황과 체계. 특정한 정신적, 인류학적 실재의 특이성, 그리고 기호나 구조의 즉각적이며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의미의 필연적인 중요성은 시각적-조형적 현상의 메시지를 결정한다.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은 이를 “이는 요소들의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에서의 강조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4). 어떠한 해석을 결정짓는 하나의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배타적으로 유의미한 가치체계 혹은 어떠한 언어적 표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우세한 재현의 체계 대신, 다양한 구체적 구성과 인식과 소통의 다른 실재들이 있으며 그 구성과 실재들은 다른 시각적-조형적 체계들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구현한다.

“특정한 맥락적 혹은 상황적 의미의 강조”는 언어적 구조의 동질성의 큰 주류 모더니즘적 개념과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서사의 제거, 그리고 특정하고 극소한 공동체적 관련성의 감소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하위문화적, 지역적, 그리고 특정한 상징체계나 맥락적 상징들을 향해 열려 있다. 그것은 종종 감추어져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인식 가능하지만 다양한 은유적 차원이나 관점에 관한 모든 참조들을 수반하고, 각각의 예술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는 지역의 전통, 특정한 하위문화적 요소, 신화적 혹은 역사적 서사, 집단적인 경험 등과의 특별한 관계를 수반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기억을 결정 지으며 상징적 형태와 언어적 모델을 명확히 표현한다.

하나의 방법론적 체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다양한 맥락적인 참조들을 뒤섞거나 한 점의 그림 안에서 모티브나 회화적 구성 대한 다양한 독해와 대면할 때, 이강소는 이중적인 전략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그는 재현적인(연상적, 상상적, 혹은 심지어 문학적인) 요소들을 비재현적이거나 혹은 자기참조적인 구성(내재된 회화적 기능, 혹은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소명을 지닌)과 인위적으로 뒤섞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회화적 노동을 공개된 과정, 혹은 개방적인 시각적-조형적 실재의 지적인 건축(intellectual building)으로써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의 회화가 갖는 이러한 개방적 성격은 수용자가 내부자, 즉 회화적 구조가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독자로서 그의 작업과정, 예술적 실천의 배후에 있는 지적 계획(intellectual plan)을 따르도록 한다.

이강소는 관람객들이 이 문화적 상징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회화적 구조를 다른 방법들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아마 추상표현주의나 행위추상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처럼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감각적으로 과도하게 집약적이며 기초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문학적 참조들, 일화적 환기들, 은유적인 관점들이 구조적 요소들, 언어적 모델들, 그리고 다른 함축과 연상들과 대립하는 곳에서 그것들의 연상적 능력이 순수한 회화적 현상과 설치, 많은 감정적이며 지적인 고려들을 그 회화 작품의 핵심적인

서사로서 보여주는 정교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의도적으로 개발된 복잡한 구조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잡하고 다양하며 결국 다방면에 걸친 회화구조는 다른 해석들과 다양한 참조적 체계에 있어 지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분석적으로 만들어진 모델로서뿐만 아니라 회화구조의 모든 극적이고 폭발적인 신중함과 함께 감각적인 경험으로서도 기능한다.

하나의 철저하게 고착된 과정에 의존하는 이강소의 회화작품들은 구조적 과정과 공간적 구성의 정밀하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체계화를 보여주고, 주된 회화적 맥락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회화적 맥락은 무한의 참조분야들과 은유적인 환기작용들(metaphoric evocations)을 수반한다! 이는 그의 작품들이 분석적인 회화이거나 다양하며 타당한 해석의 가능성의 증명이거나 지적으로 정교하거나 객관적으로 고급스러운 방법론에 관한 강의가 결코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회화는 완전하게 특정한 종류의 “새로운(new)” 복잡성의 전망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전망은 더 이상 연관이 없고, 기능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오래된” old 복잡성, 전세계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추상적인 세대의 복잡성, 그리고 끝없는 다양성의 균일화, 그리고 다양한 현실의 폐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강소의 회화작업은 진정한, 감각적으로 효과적이고, 시적으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구성 (composition)을 추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상상적 공감의 장뿐만 아니라 가능한 재현적인 언어체계의 환기를 수반한다. 이러한 회화의 감성적인 강렬함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성을 내면화하는 능력의 상태를 향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복잡성 내에서 서로 어떠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자연과 인공, 유기적 실재와 비유기적 실재, 물질적 과정과 인식이나 방법의 체계화가 상호 대립하거나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강소의 회화는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나 방법론적인 설명, 진지한 강의(heavy lecturing)나 교훈을 주어야만 한다는 압박(didactic pressure)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남는다. 이러한 회화는 순수한 회화의 영역 내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형의 회화는 순수한 회화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며 기본적인 인간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 위해 회화적 실재의 가능한 해석에 집중한다.

특히 이강소의 예술적 사고(artistic thinking)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핵심적인 경험들 중 하나는 인간의 시공간적 움직임의 구성에 대한 고려인 것 같다. 이러한 고려는 우리의 우주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 순간,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의 복잡성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의문에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고고학적인 구성(constellation)의 각각은 영속적으로 재정의 되고 재탄생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요소의 끈임 없는 변경과 인간 구성의 영속적인 변경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객관적인 실재로 나타날 것이다. 이강소가 강, 산, 하늘, 비와 같은 자연적인 소재나 심지어 동물이나 집과 같은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작업할 때 그는 - 가상의, 상상적이며 일화적인 것들의 내부에 - 회화적인 상황의 실재를 창조하고, 그 상황은 안정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들이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연기자들, 물질들 그리고 분위기 있는 감정적 효과들이 작가가 은유적인 관점들(metaphoric perspectives)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적인 상황(poetic event)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강소는 추상적인 공허(abstract emptiness)로 공간의 보편적이며 - 형이상학적인- 특질을 유지하며 동시에 그는 추상적 공허를 풍경이나 물질적 실재로 구체화할 방법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개인적인 창조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준다. 그가 전통 한국풍경화의 회상과 함께 작업하는 이유는 그가 풍경화의 개념, 즉 풍경을 바라보는 방법을 문화적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풍경화의 안정적이고 변화하는 요소들과 함께 풍경화는 관찰자의 정의나 관찰의 부재를 수반하며, 이는 특정한 종류의 보편적인 신비주의를 자아낸다. 그 대신 이강소는 물질적 구성의 유사성(parallelism)을 이용하고, 그러므로 그는 모티브, 상황, 문학적 대상들, 그리고 행위적이며,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즉흥을 자아내며, 또한 비재현적 성질의 고도로 강력하고 폭발적인 구성(composition)을 만들어낸다. 그 구성은 공간-시간-동작 구성(space-time-movement constellation)의 특정한 고려가 있는 곳에서 시각화 될 수 있는 회화적 실재에서 보다 훨씬 탁월한 노동의 다양한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공간적 움직임의 구성은 시각적- 조형적 은유들을 만들어내고 기본적인 인간의 근원에 관한 질문들을 일으키는 그 은유들은 개인적이고 공평하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초개인적인 실재로서 시간 인식의 모호함과 드라마를 불러일으킨다. 이강소의 회화작품을 고려하거나 관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입지, 우리의 능력의 기준이나 기능에 의문을 영속적으로 제기하는 그의 작품에 연루됨을 느낀다.

이전에 언급했듯 이강소의 모든 작품들이 새로운 종류의 복잡성을 만들어내며 이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연관 없는 추상보편주의 전망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구체적이고 특별하며 이질적인 인간 삶의 구성에 근거하는 이유이다. 이 시각적-조형적 현상의 감각적 강렬함, 연상적인 상상, 시적이며 감성적인 아우라는 우리의 인간적 근원이 그 스스로를 담은 이러한 복잡성으로 전이된다. 모든 방법론적인 숙고와 언어적인 유사성은 시적으로 암시적이며 환기시키는 시각적-조형적 실재를 창조하기 위해 어떠한 배타적인 모델의 우세라도 상대화시키며 이는 은유적인 관점을 구현한다. 이강소 회화의 중심 주제는 이러한 미적이며 윤리적인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영속적인 자문(self-questioning)을 유도하는 공간-시간-동작 구성의 실제적인 복잡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기본적인 은유적 의미를 구현하는 감각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연상적이고 시적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회화적 실재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이러한 복합적이며 상호연관적으로 이질적인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강소는 모든 방법론적 제한과 규제, 자기참조적이고 서사적인 상징구조 사이뿐만 아니라 구상적이거나 비구상적인 체계 사이의 모든 관습적인 적대감을 상대화 시켰으며, 추상표현주의, 액션페인팅 뿐만 아니라 전통적 풍경화의 참조들을 통해 은유적인 차원과 관점을 전달하는 세심한 회화적 구조를 정교하게 표현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모든 회화작품들은 행위적 붓질을 통해 동작에 대한 관찰, 변화에 대한 관조, 그리고 커다란 형태와 육중한 신체를 만들어내는 행위적 구성 주변의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공간의 형성을 통일한다. 행위적 구성은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유사 삼차원적(quasi three-dimensional) 물질적 실재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텅 빈 공간을 구체화하며 이를 가상적인 공간, 가상적인 풍경화로 변화시킨다.

상상 배나 오리와 같은 구상적 –혹은 반구상적(semi-figurative) – 소재들은 가상적인 풍경을 창조하기 위해 이용되나 이러한 풍경은 실제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공간이다. 정확하게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위는 정확히 은유적인 관점과 연관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인의 실재를 수반하며, 각각의 창조적인 노동은 그 스스로를 구체화한다. 이강소는 매 작업마다 방법론적인 결정을 통해 자신만의 핵심적인 주제인 존재의 창조와 전달과 연관된 은유로 회귀한다. 형태를 창조하는 개인적인 행위에 있어 그 존재의 감각적인 구체화, 연상적인 구현, 그리고 시각적인 재현은 이강소의 미묘하고 지적이며 기억을 상기시키는 회화작업의 중심 순간인 듯 보인다.